

2026년 9월 17일
해외 주식

중국 주식

미중 정상회담: 높아질 기대, 숨 고를 증시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이후 10차례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정상회담 전 중국 증시의 상승 빈도가 높았던 반면 회담 이후에는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약 300억 달러 규모 품목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포괄적인 신규 무역협정보다는 기존 휴전의 연장과 세부 합의 구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경우, 비중 확대보다는 차익실현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주가: 회담 전 선반영, 회담 후 상승 탄력 약화

트럼프 1기 이후 미중 정상회담 사례를 보면 정상회담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담 전 10영업일 동안 CSI300, 항셱은 각각 9차례, 7차례 상승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2.2%, +3.1%를 기록했다. 회담 종료 후 10영업일 동안 두 지수 모두 7차례 하락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각각 -0.5%, -0.3%로 낮아졌다. 회담 이후에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 대표 사례는 2025년 부산 회담이다. 당시 미국은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를 10%p 인하했고, 중국은 희토류 관련 신규 수출통제 시행을 유예하는 등 긴장 조치를 완화했다. 2025년 부산 회담 후 10영업일간 항셱 지수는 3.0% 상승했다.

미중 교역 회복, 중국 순수출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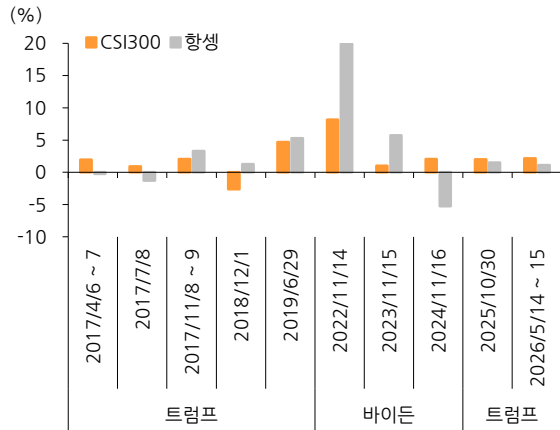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미 교역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월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입 증가율은 10% 중반~20%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미 수출 증가율은 10% 중반~30% 중반으로 높아졌다. 연초 교역 부진 영향으로 중국 전체 무역 흑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인화와 교역 확대가 이어질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며 중국 순수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9월 정상회담 전 추가 상승, 차익실현 기회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대규모 중국 기업인 사절단 동행, Nvidia 젠슨 황 CEO의 국민만찬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은 휴전 연장, 품목별 관세 인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를 구체화하는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양국은 비민감 품목 약 3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협의 중이며, 중국은 2026년 1~7월 미국산 대두 1,070만 톤을 수입해 연간 구매 약정 물량의 43%에 근접했다. 관세 인하 대상과 규모가 크게 확대되거나, 반도체와 희토류 등 핵심 기술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남은 기간 중국 증시가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을 통해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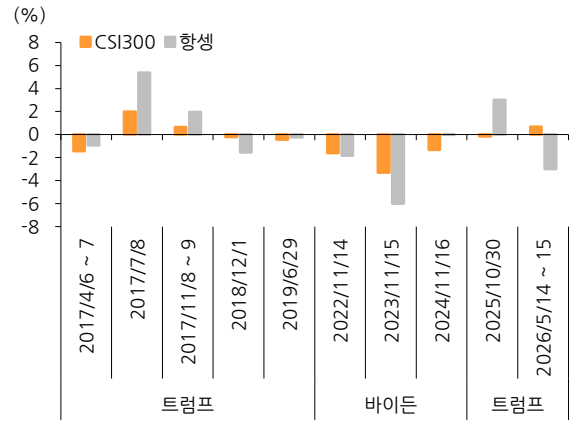
▶중국주식 박유진
yujin.park@hanwha.com
3772-8217

[그림1] 미중 정상회담 전 10 영업일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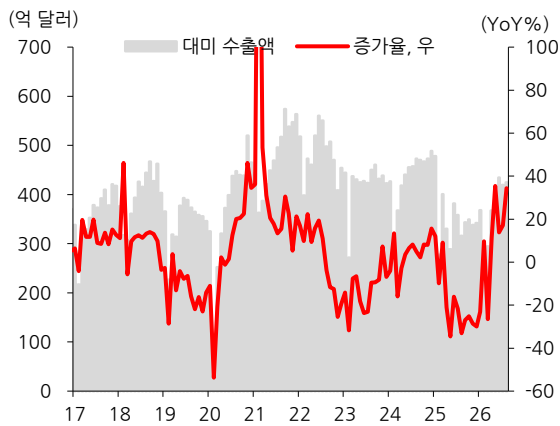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중 정상회담 후 10 영업일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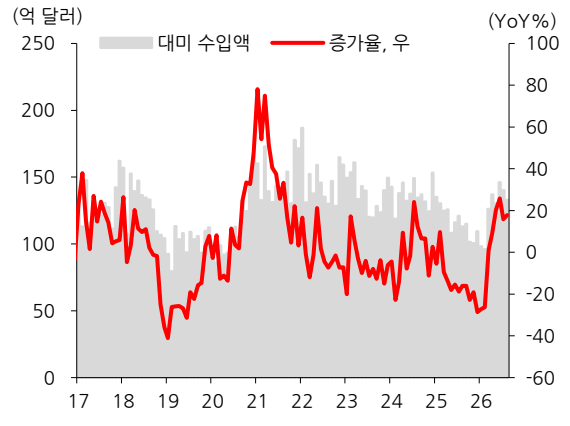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의 대미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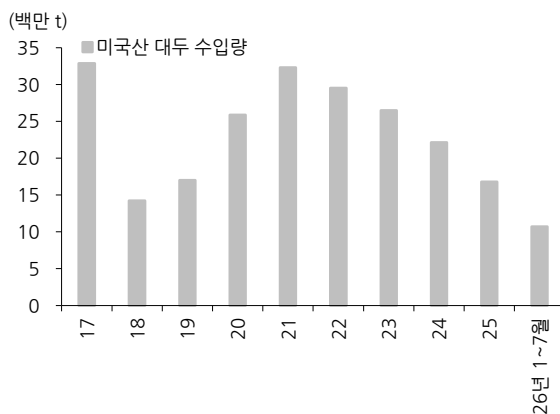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의 대미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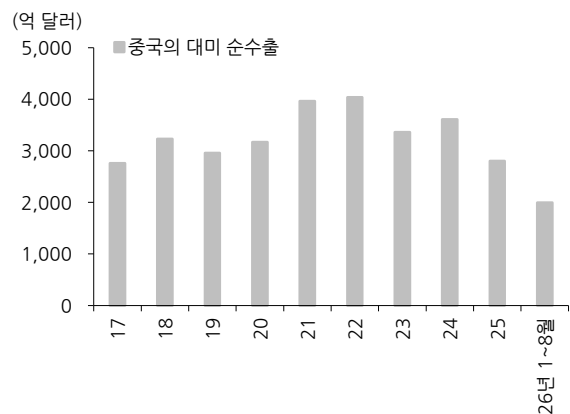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의 대미 대두 수입량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의 대미 순수출액



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17년 이후 미중 정상회담 결과

미국 정권	회담 시기, 위치	주요 합의 내용
트럼프	2017/4/6 ~ 7 (마라라고)	-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100일 계획 추진 - 4개 분야 고위급 대화체계 신설: 외교·안보, 포괄적 경제, 법 집행·사이버 안보, 사회·문화
	2017/7/8 (함부르크)	- 첫 포괄적 경제 대화, 7월 19일 개최 결정 -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논의 - 상호주의적 무역·시장 접근 문제 점검 및 실무진에 후속 대화 진전 지시
	2017/11/8 ~ 9 (베이징)	-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및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한 2,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협약 발표 -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및 대화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 군사 소통 확대 - 펜타닐 등 마약 대응, 사이버 범죄 수사, 도피사범·불법이민자 송환 협력 강화
	2018/12/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미국, 대중국 관세율 인상 (10% → 25%) 90일 유예 및 무역 협상 추진 -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너지·공산품 구매 확대 약속 - 중국, 펜타닐 규제 강화 약속 - 강제 기술이전·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 관련 협상 추진
	2019/6/29 (오사카)	- 미국, 무역협상 재개 및 추가 관세 부과 유예 - 미국,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미국 기업의 화웨이 대상 판매 허용 - 중국,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바이든	2022/11/14 (발리)	- 4개 분야 고위급 협력 추진(기후, 보건, 식량 안보, 거시경제) - 양국 관계 원칙 후속 협의의 진행 - 미 국무장관 방중 계획 발표 - 우크라이나 내 핵무기 사용 반대
	2023/11/15 (샌프란시스코)	- 군사 소통 재개 - 마약(펜타닐) 대응 협력 재개 - 정부 간 AI 대화 추진 - 항공편 및 인적 교류 확대
	2024/11/16 (리마)	- 군사용 AI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개발 필요성 확인 - - 인간의 통제에 따른 핵무기 사용 원칙 확인 - 군사 소통, 마약 대응, AI 안전, 기후·인적 교류 등 협력 지속 - 외교·군사법 집행·경제·금융 채널을 통한 소통 유지
트럼프	2025/10/30 (부산)	- 추가 상호관세 부과 1년 유예 - 해운·물류·조선업 대상 제재 조치 상호 중단 - 미국, 대중국 펜타닐 추가 관세 인하 (20% → 10%) -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단 - 중국, 희토류·광물 수출 통제 유예 및 완화 - 중국, 2028년까지 매년 미국산 대두 최소 2,500만 톤 구매 약속 - 중국, 펜타닐 전구체 수출 통제·단속 강화 약속
	2026/5/14 ~ 15 (베이징)	- 정부 간 무역·투자 협의회 각각 설립 합의 - 관세 상호 인하 논의 합의 (300억 달러 이상 상품 대상) -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도입 및 미국산 엔진부품 공급 보장 - 미국산 쇠고기 등과 중국산 일부 농식품의 상호 시장 접근 개선 - 희토류·핵심광물 공급 관련 우려 해결 추진 - 중국,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기존 대두 구매 약속과 별개)

자료: 언론종합,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9월 17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유진)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 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 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